

하루를 시작하며



이종실 사단법인 제주어보존회 상임이사

이슈 우화 '팔리 가는 당나귀'를 다시 본다. 이 이야기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당나귀를 팔리 가는 도중에 참견하는 사람들에게 휘둘리다 종국엔 당나귀를 잃는다.

다시 보는 '당나귀' 우화

다고 했다. 그 사람은, 별거 아닌 것에 트집이냐고 힐난하는 사람과 '당나귀 싸움'을 크게 했다. 요즘 나라 안 현실은 이 우화나 일화보다 훨씬 더 심하다.

한 방입이 지각없는 참견만큼이나 해롭다. 모두가 사회적 존재로서, 이웃을 위해 참여해야 한다. 의사결정의 대행과 조정이 본분인 기관이나 단체도 역할을 제대로 잘 못하고 있음이다.

출하지 못하면 거기에 희망이 없다.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모두가 자기의 도리와 직분을 잘 지켜야 한다. 서로 다투기보다는,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며 서로에게 도움이 되려고 노력해야 한다.

사설

제주4·3특별법 연내 개정 물건너 가나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처리가 점점 불투명해 보입니다. 자칫 연내 처리도 무산될 우려마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른 법안보다 후순위로 미뤄지면서 천덕꾸러기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때문에 4·3특별법 개정안은 정기국회 내에는 사실상 처리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열린마당

오르며 지키는 오름탐방



오상완 등부소방서 성산119센터

올해는 어느 해보다도 더욱 오름 탐방이 특별한 해이다. 그것은 코로나19로 인해 제주 관광 콘텐츠가 많은 제약을 받게 돼 볼거리, 즐길 거리가 줄어들었고 오름 탐방이 관광콘텐츠로 자리 잡고 관광객이 몰려들고 있다.

올해에 대한 위치, 탐방로 등의 사전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둘째, 등반 시에는 화기를 휴대하지 않아야 하였다. 특히 건조한 기후로 인해 오름이나 주변에서의 흡연, 취식 행위 등은 반드시 삼가해야 하였다.

뉴스-in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폐지 반대 이유는...

이경용 "근시안적 개편" 일침 ○...민선7기 제주도정 후반기 조직개편안 심사과정에서 이경용 의원(국민의힘, 서귀포시 서흥·대륜동)이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폐지를 반대하는 10가지 이유'를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일부러 제주사랑상품권의 판매가 중단됐으며, 시중에 남아있는 상품권의 사용 기한은 내년 말까지로 결정. 또 관계자는 "내년 말까지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상품권은 내후년부터 '탐나는전'으로 교환된다"고 전언.

수형행불인도 '명예회복 길' 열렸다

제주4·3 당시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행방불명된 피해자들도 법원의 재심 결정으로 '명예회복'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작년 재심청구 이후 첫 결정으로 늦었지만 환영할 일입니다.

등을 감안할 때 이미 사망한 것으로 보는게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사석적이고 전향적인 판단입니다. 작년 1월 수형 생존자 18명이 70여년만에 재심청구로 무죄를 받는데 이어 수형행불인들도 재심을 통한 명예회복의 길을 밟게 된 것입니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아버지 원주변공 규호(향년 84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석주개발 712-3644, 782-3644, 010-4690-3636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732-5552

제주 통신기반 구축 한라가 책임집니다. 하고 있는 일 ▶ 키폰·교환기 설치 및 유지보수 ▶ 건물구내통신 설비공사

정보통신의 미래 >> 티엔정보기술(주) VOICE & 영상장비 (교환대 & CCTV) NETWORK 설비 (서버 & Network) ONE-STOP SYSTEM

단체반 수시모집 즐거운 삶과 다이어트를 위하여 탭라댄스교실에서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사교댄스: 지루박, 부르스, 트로트, 땡고, 민요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물 미국식품의약학회 SCI A급 등록